동박·분리막·코발트… 배터리소재 확보 큰장 섰다

LG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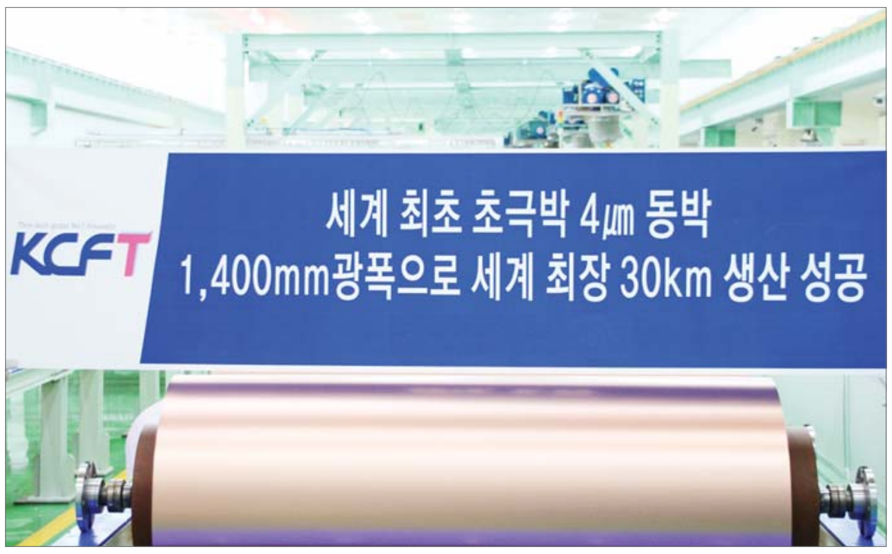
분리막 확보위해 LG전자와 힘 합쳐
폴란드에 배터리 분리막 공장 증설

SK 이노베이션

스위스 글렌코어사와 6년 구매계약
전기차 300만대 분량인 3만톤 확보

SKC

동박 제조업체 1위인 KCFT 인수
미래모빌리티 핵심동력 확보 차원



KCFT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4마이크로미터 초극박 전지용 동박. /SKC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앞으로 내연기관 대신 배터리를 원동력으로 삼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요만큼 생산능력을 확보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박·분리막 등 소재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내 관련업계의 '눈치싸움'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동박 제조업체인 KCFT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SKC는 지난해 6월 인수를 공식 발표한 뒤 약 7개월 만에 KCFT를 100% 투자사로 맞이하게 됐다.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리막·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4대 핵심 소재가 필요한데, 동박은 구리를 고도의 공정 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2차전지 음극재의 필수 소재 가운데 하나다.

SKC는 KCFT를 인수함에 따라 사업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월 화학사업부의 물적분할뿐 아니라 7일 KCFT 인수 마무리에 따라 화학 대신 2차전지 시장에서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SKC의 영업이익은 2754억원으로 전망되는데 그 중 KCFT의 기여도는 35%(969억원), 순이익 기여도는 49%(7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KCFT의 동박 생산 능력은 현재 연간 2만톤에서 내년 3월 기준 4.3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KC 관계자는 "사업방향성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쪽으로 전환하면서 강화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를 강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는 도중에 다양한 사업 중에서 특히 동박이 성장성 등을 봐서 SKC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인수하게 됐다"며 "동박 시장이 워낙 수요가 올라가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됐다.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성장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박사업을 인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배터리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은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LG전자와 힘을 합치고 나섰다.

LG화학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 LG전자가 해당 지역에 첫 해외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LG전자의 분리막 공급으로 배터리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 배터리 업체인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의 대량 확보를 위해 스위스 글렌코어사와 계약을 맺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코발트 약 3만톤을 공급받는다. 이는 순수전기차 약 300만대 분량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의 전기차용 코발트 수요는 3만2000톤에서 2025년에 9만2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S의 미래는 글로벌에… 모험가적 리더 기대"

구자열 LS 회장 임원 만찬서 당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새 임원들을 만났다.

LS그룹은 구 회장이 6일 LS용산타워에서 올해 승진한 신임 임원 14명과 만찬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구 회장은 이날 "오늘 승진한 신임 임원들의 면면을 보니 그 동안 그룹에 심어왔던 글로벌 경영, 글로벌 인재의 씨앗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며 "LS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글로벌 시장에 있고, 여기 있는 신임 임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열쇠를 앞장서 찾아내는 모험가적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왼쪽)이 신규 임원이 된 LS전선 박현호 이사(LSCI법인장)에게 기념액자를 선물하고 있다. /LS그룹

실제로 LS그룹은 올해 해외 사업 담당 부문에서 신규 임원을 여럿 승진시켰다. 앞서 구 회장은 신년사에서도"글로벌 사업의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현지화하고 해외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030 글로벌 비전' 발표와 LS산전 조직 내 '글로벌 사업본부' 신설 등도 같은 행보다.

구 회장은 아울러 임원들에 인코칭 홍의숙 대표의 '리더의 마음'과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창립자의 '살아가는 힘',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 등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구 회장은 2013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매년 신임 임원들과 자리를 마련해왔다. /김재웅 기자 juk@

한화시스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수주액 2조2000억원
연초 목표 7200억 초과 달성

한화시스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 2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보다 67%가 증가한 수치다. 수주 목표보다도 72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8월 5500억원 규모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사업(IFF 모드 5)에 이어 12월에는 4700억원 규모 전술 정보통신체계(TICN) 등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2200억원 규모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체계 개발 다기능 레이다 시제공급 계약 등 성과도 이어갔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달성한 방산 부문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무인 지능화 첨단 무기체계와 스마트 경계·감시 및 사이버 보안, 에어택시(PAV) 등 신시장 개척과 함께 글로벌 시장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새해 로밍 이용객 500명에게 경품 쏜다

LG유플러스 'U+제로 로밍'
공기청정기, 상품권 등 증정

LG유플러스는 2020년 새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U+제로(제대로 로밍하자) 로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2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 중 500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피자·커피 교환권, 해외로밍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의 '진행중인 이벤트'에 접속해 'U+해외로밍 제로와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 계획 세우기'를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경품 당첨자 발표는 29일 이벤트 응모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1월은 평시보다 U+해외로밍 이용객이 10% 이상 증가하는 성수기로 분류된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있어 공항을 찾는 해외여행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LG유플러스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있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앞선 지난해 9월 음성과 데이터 혜택을 대폭 강화한 'U+해외로밍 제로 요금제'로 로밍 상품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 12월까지 4개월 만에 '제로 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데이터 사용량은 5배 증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BMW 뉴 320d, 국토부가 꼽은 '2019 안전한 차' 등극

BMW 뉴 320d가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 차량에 선정됐다.

BMW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시 '2019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케이앤캡)'에서 올해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케이앤캡은 정면충돌, 측면충돌, 보행자 안전성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신차 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뉴 320d는 올해 평가 차량 중 유일하게 전 부문 최고등급 안전도를 기록했다. '충돌 안전성' 부문에서는 60점 만점에 59.69점, '보행자 안전성'과 '사고예방 안전성' 부문에서도 각각 20점 만점에 17.7점(88.5%), 17.4점(87.0%)을 얻었다. 측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어린이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는 모두 만점이었다. 총점은 96.29점이었다.

앞서 뉴 3시리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안전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유로앤캡에서도 별 5개를 획득했다.

BMW 코리아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긴급제동장치(AEB) 기본 적용 계획에 적극 협조해, 올해부터 국내에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자동긴급제동장치인 '아이브레이크(iBrake)'를 기본탑재키로 했다. /김재웅 기자